저는 학창 시절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며 꾸준함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보완하며, 기본에 충실하는 태도가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에서는 요트 동아리 'YAT'에서 활동하며 동료들과 함께 바다를 경험했습니다. 요트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만큼 서로의 상황을 살피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해기사의 길을 선택한 이후에도 제 생활과 업무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6개월간 LPG선에서 실습하며 가스 운반선의 운항과 화물작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항해 당직을 배우는 한편, 화물 관리와 작업 과정을 관찰하고 일부 업무에 참여하며 관련 설비와 안전절차를 익혔습니다. 특히 화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작업 전 설비의 상태와 절차를 확인하는 일이 사고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통해 가스 운반선은 항해 업무뿐 아니라 화물에 대한 전문지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항 케미컬선에서 3등 항해사로 근무하며 항해 당직과 화물 당직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화물 적·양하 작업 시 계획된 탱크에 맞춰 화물 이송 경로를 설정하는 라인업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실습생이 아닌 사관으로서 업무를 맡아보니 작은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화물작업에서는 작업계획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LPG선과 케미컬선에서 경험한 업무를 바탕으로 LNG선에서 새로운 전문성을 쌓고 싶습니다. LNG선은 기존에 경험한 선종과 화물의 특성 및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지해운은 MOL과의 협력을 통해 LNG선 전문 해기사를 양성하고 있는 회사이기에, 제가 목표로 하는 항해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했습니다.

입사 후에는 먼저 항해 당직과 구명 및 소화설비 관리 등 3등 항해사의 기본 업무를 정확하게 익히고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LNG 화물설비와 적·양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은 상급 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배우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모든 업무를 잘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꾸준히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선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작은 일부터 신뢰를 쌓고, 장기적으로는 LNG선의 항해와 화물작업 모두에 전문성을 갖춘 항해사로 성장하겠습니다.